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실패를 어떻게 만지시나.

여러분, 부활 축하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생명의 주님이시니, 우리의 실패 속에서 어떻게 삶을 부활시키시는지 살펴봅시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하신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우리는 보통 이것을 지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지난 몇 년 동안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느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무엇이 당신을 변화시켰습니까?”라고 묻는다면, 하느님께서 제게 얼마 만큼의 동정심과 인내심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마침내 알 때까지, 저는 그것을 그저 반복해서 들었을 뿐입니다. 오늘 밤 복음에서 우리는 실패에 대한 세가지 예를 볼 수 있습니다.

1) 여자들은 예수님의 가장 충실한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본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안식일이 끝나자, 마리아 막달레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향료를 사서, 예수님께 성유를 바르러 가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주 첫 날 매우 이른 아침... 그들은 무덤으로 갔습니다’(마르16:1-2). 그들은 그분께서 돌아가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우리의 어머니, 마리아는 무덤에 가신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요한 바오로 2세

성인(http://www.vatican.va/content/john-paul-ii/en/audiences/1997/documents/hf_jp-ii_aud_21051997.html) 과 다른 신학자들은 그녀가 무덤에 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분께서 살아나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https://opusdei.org/en-ca/article/life-of-mary-xvii-christs-resurrection-and-ascension/>).

다른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갖지 못한 동안에도, 그녀는 희망을 지켰습니다.

2) 무덤에 앉아 있던 젊은이가 여자들에게 이르기를,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래아로 가실 것이라고 일러라”(16:7). 이것은

초대 교황과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했는지, 그리고 그분의 무덤에 간
여자들의 사랑 조차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 3) 젊은이는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하라고 지시하지만, 성서학자들은
그녀들이 이 일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Leroy Huizenga, *Loosing the Lion*, 309)!!
본문에는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달아났다.덜덜 떨면서 겁에 질렸던
것이다.그들은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다”(16:8).고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모든 실패를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그분께서는 다시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대림절과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의 우리의 주제였고, 우리는
이것을 다시 들을 필요가 있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르크 성인의 복음서에서 특별히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서는 오늘 밤 그것을 반복하십니다. 특히, 이 복음은
제자들의 거듭된 실패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계속 일으켜 세우시는 지를
보여 줍니다(Mary Healy, *The Gospel of Mark*, 331).

- 예수님께서서는 여전히 그녀들을 그분의 증인으로 보내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여전히 사도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분의 이름을 그들이 선포하도록
위임하실 것입니다.
- 그들이 갈릴래아에서 그분을 만나기로 한 이유는 복음서 시작에, 그들이 처음
그분을 만난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르코 성인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읽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실패한 그들 자신을 보게 하려고, 그의
복음서에 이런 식으로 쓴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복음을 다시 읽고 더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개인적, 도덕적, 영적
실패로부터 다시 시작하십니다(Carlo M. Martini, *The Spiritual Journey of the Apostles: Growth in the
Gospel of Mark*, 93). 그리고 부활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서는 그분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 단 한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경을 써야합니다. 베드로 성인은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쳐다보실 때, 그는 신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여인들은 그분의 몸에 기름을 바르러 갈만큼 충분히신경을
썼습니다. 하느님의 계획은 그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유 의지는 그들을 위한 그분의 계획을 방해하게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면, 하느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만약 우리가 그저 성장하려는 욕망을 갖기만 한다면, 동정심 많은 아버지이신 하느님 때문에, 성장은 시작됩니다. 그저 열려있음과 선의만을 구하십시오. 살아나신 예수님께서서는 여인들과 제자들의 선의를 받아, 시간이 지난 뒤 그들을 성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 그분께서는 많은 이들의 선의를 받아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셨습니다.

- 믿지 않는 사회학자인 로드니 스타크는 ‘기독교의 부상’이라는 책을 썼고, 초기 기독교 교회는 첫 300년 동안 10년마다 40%씩 성장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일까요? 예수님처럼 사랑함으로써; 그들은 예수님에 의해 변모하였습니다. 고대의 일상 생활은 비참했지만, 기독교는 그것을 더 견딜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이 아플 때, 서로를 돌보았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교도 여성들은 11세 전후로 35세 전후의 남성들과 결혼한 반면, 그리스도 여성들은 18세 정도에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자 아기들을 낙태하지 않았고, 유아 살해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타크는 “기독교가 개종자들에게 준 것은 다름 아닌 인간성이었습니다”(https://touchstonemag.com/archives/article.php?id=13-01-044-i).

예수님께서서는 오늘날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비천함을 받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인간성을 주시고, 우리의 실패를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 2018년 텍사스에서 보텀 진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살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비번 경찰관, 앰버 가이거가 쏜 총에 맞아 살해되었습니다. 그녀의 재판 중, 진의 형은 그녀를 용서했습니다. 잠시 후에 형의 살인자에게 말하는 브란트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브란트의 믿음을 보시죠. 사랑의 본질에 대한 그의 강인함과 그의 사랑의 자연스러운 이해는 저에게 있어 예수님 부활의 신호입니다. 그가 한 말은 예수님께서서는 살아 계시고, 삶을 바꾸신다는 표시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koE_GQsbNA

0:00-2:30).

- 이 순간이 조금 지난 후, 판사 타미 캠프는 가이거에게 가서, “브란트 진이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부디 자신을 용서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가이거는 만약 아직 그녀의 삶의 목적이 있고, 하느님께서 그녀를 용서하실지를 물었고, 캠프는, “네, 그분은 그러실 겁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가이거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성경책이 없어요. 저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캠프는 자신으 방으로 가서, 자신의 성경책을 다져다가 그녀에게 주며, 그녀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펴라고 하고, 그것을 같이 읽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https://www.youtube.com/watch?v=qjA16Xubtz8).

예수님께서서는 살아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그분을 다시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며,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하도록 초대하십니다.

- 저는 예수님께서서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교구 안의 실패 한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 가족 안의 실패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섬세히 꺼내 보겠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가톨릭 결혼생활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것은 모든 교구에서 일어납니다. 가족들 안에 많은 상처, 쓰라림 그리고 원한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희 가족도 그렇게 강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부분은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사랑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2021년 나머지를 가족이라는 주제에 집중하며 보낸다,입니다. 여기에 저의 세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1) 5월 8일 어머니의 날 주말을 시작으로, 우리는 이 44일간의 “요셉 성인을 통한 예수님께 드리는 봉헌.” 을 합니다. 우리는 하루 두장씩 읽고, 질문에 스스로 반영해 답하고, 매주 소그룹이 만납니다. 제가 이 책을 사용해 봤는데, 너무 좋아요. 삶과 가정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책에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고 싶어하시는 몇가지 방법들을 보게 됩니다.

- 2)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의 존재의 중요성을 재 발견한다면, 10대와 학령기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올 가을 우리 교구에 NET팀이 올 수 있도록 지원 해주셨으면 합니다. NET은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접하는 것을 돕기 위해 1년 동안의 삶을 포기하는 전임 청년 선교사들이 있는 국가복음화팀(National Evangelization Team)을 뜻합니다. 우리는 작년에 그것을 성사 시키지 못했지만, 올해 우리의 젊은이들, 십대들, 그리고 미래의 십대들에게 있어 그것은 판도를 바꿀 것입니다.
- 3) 현재 저희는 Alpha와 같은 그룹이 만든 7주 과정인, *The Marriage Course*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결혼한지 2년이되었든 30년이되었든, 그들의 부부관계에 투자하고, 튼튼한 결혼생활을 구축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을에 더 많은 커플들을 위해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교구에서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족과 친구들을 초대하여 이것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구에 성령께서 하시기를 바라며 그리는 그림이고,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우리와 함께 참여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가족을 치유하시길 원하십니다. 저나 교구 리더에게 의견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황 베네딕트 16세의 말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 예수님은 과거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리고..살아 있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 앞을 걸어 가시며 우리를 따르라고 부르시며... 이 길 안에서 우리는 자신을 위한 인생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http://www.vatican.va/content/benedict-xvi/en/homilies/2006/documents/hf_ben-xvi_hom_20060415_veglia-pasquale.html)